

교회성장을 돕는 상담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한밀 교회를 중심으로 -

심 수 명 교수
(Ph.D.,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문초록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20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편승하여 한국교회는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세계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아울러 질적인 성장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회의 성장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있다면 교회는 사회와 구성원에 대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상담목회를 통한 교회성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대는 점차적으로 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담목회는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과 기능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목회사역으로서 미래에 가장 필요한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목회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목회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를 통해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상담목회를 통하여 교회성장을 돕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상담목회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한밀교회 상담목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담목회사역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욱 더 성숙해 지기를 기대한다.

중심단어 : 한밀교회, 상담, 목회, 상담목회, 교회성장.

I. 여는 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도 120년이 다가온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짧은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편승하여 한국교회는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을 하였고,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47,000여 교회,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의 수를 자랑하게 되었다. 불과 120년 전만 해도 피선교지였던 나라가 2004년 말 통계에 의하면, 세계 160개국에 약 12,874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다.¹⁾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아울러 더 한층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질적인 성장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지만 양적 성장이 교회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교회가 외형적인 교세 확장에만 치중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사회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의 성장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며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면 더 이상 외적인 화려함과 대항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병들어 가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그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건강한 성도 없이는 건강한 교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교회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것을 위한 실천적 목회방법론으로서 연구자는 상담목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한 교회성장이 무엇인지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상담목회란 무엇이며 왜 상담목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상담목회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한밀 교회의 상담목회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미래적으로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해 성경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상담목회사역이 가장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교회성장

(1) 교회성장의 신학적 이해

교회성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적 역사이다.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 위에 기초를 두고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전 3:6-7).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고전 3:6). 즉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속하지만 인간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²⁾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장해야 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내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섬기게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외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복음 설교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지체들이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근원이고 목표이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써만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회성장학은 하나님이 교회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이 키우시고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려는 노력에 다채로운 방법론을 적용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실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역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이다(마10:16).

(2) 바람직한 교회성장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면서도(양적) 수준 높은(질적) 성장이다. 그렇다면 교회성장에는 어떤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다음의 네 가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질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질적 성장이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인격의 변화와 아울러 성품과 삶을 움직이는 내면적 동기의 변화까지를 포함한다. 즉, 회중의 신앙적인 면에서의 깊이와 질적인 성숙을 뜻하는 것이다. 깊이 있는 성장을 위해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 삶을 말씀을 통해 바로잡아 온전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들, 그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과 약속된 재림의 의미를 삶 속에서 영적이며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넓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회는 양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양적 성장이란 외적으로 나타나는 개체 교회의 교인수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양적 성장을 위해서 개 교회마다 전도를 통하여 회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사회를 섬겨 빛과 소금이 되는 확장 성장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독교적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인들은 주위에 어두움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진리와 정의, 사랑과 평화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삶의 영향력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점점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개인적인 부르심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은 항상 타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섬김을 통하여 복음이 사회와 국가에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문화를 기독교화 시키는 가치관의 변화를 목표에 두고 접근해

야 하는 것이다.

넷째, 선교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 갈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교육한 후 다시 파송함으로 그 문화권에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지리적인 확장인데 이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행1:8).

초대교회는 양적 증가에 따라 질적 성장에 힘쓰으로써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 봉사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신도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여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명이 있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목회자는 구원받은 양 무리를 잘 돌보아 제자의 사명을 다 하도록 성실히 훈련하여 온전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함으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2) 상담목회(Counseling Ministry)

지난 시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교회는 다양화되고 개인화된 교인 개개인의 개성과 요구들을 능동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목회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가장 적절한 대안은 바로 상담목회이다. 상담목회란 목회상담을 통한 목회이며, 목회상담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목회의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상담목회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상담목회가 목회돌봄이나 목회상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담목회의 필요성

목회신학자인 Seward Hiltner는 전통적인 목회에서 목사의 역할과 기능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했다. 첫 번째는 목양적 관점으로 치유, 지탱, 인도의 기능인데 심방, 상담, 위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대화적 관점으로 교육, 예배, 전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는 조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

호, 육성, 관계시키는 기능으로 교회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위의 분야가 여기에 속한다.³⁾ 이러한 목회는 목회자가 수행하는 하나의 직무로 이해되기 보다는 목양이라는 비유에 나타난 이미지처럼 깊은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깃든 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적 현실에서는 목회자들은 목회의 효과성을 위해 심방, 선교, 교육, 설교, 기도, 신유 등 어느 한 가지 분야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목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딤후 3:17) 목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신앙과 삶, 삶과 행동이 일치하는 전인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인격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전인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 이것에 대하여 연구자는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저는 성도들의 인격 변화를 위해 무릎을 꿇는 기도와 신학과 목회학, 그리고 심리학과 상담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목회 현장에서 임상 실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과정은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의 변화는 성격과 삶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오랜 기간의 수고와 인내가 요구되며⁵⁾ 인간의 심리내적인 이해와 더불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적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한 수고를 통해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⁶⁾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야한다고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구원 이후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방법이 아닌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종교적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즉 의식적 차원의 기독교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면 깊숙이 침투되어 그 성품과 내면(무의식)의 변화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내면

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시작하여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⁷⁾ 연구자는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상담목회사역이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목회를 위한 방향에서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도 상담목회는 시대적 요청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국 문화는 집단주의적 문화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인의 주도적인 자기상은 '집단중심의 모습(collective self 또는 group-centered self)'에서 '개인 중심의 모습(individual self)'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와 신세대들은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을 넘어뜨리고 개체중심, 개인중심, 개성중심의 삶의 스타일을 선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개개인의 삶이 존중되고 중요시 될 때 지금까지는 숨겨오거나 소홀히 여겨져 왔던 분야나 문제들이 목회와 상담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교회에서는 감추려고만 했던 성의 문제나 가정폭력 문제 나아가 약물중독 등의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는 그저 타고난 것이라 여겨졌던 개개인의 성격문제나 생활스타일 문제 등도 주요한 상담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목회자는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청되고 있다.⁸⁾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목회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로 부름 받은 자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회상담적 접근이나 상담목회 사역은 이제 목회자에게는 거의 필연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상담목회만이 목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거나 목회가 온전히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원화된 목회 현장에서 어느 한 영역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건강한 목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목회의 본래적 목적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그리고 다가 올 미래에 가장 바람직한 목회사역의 하나가 상담목회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목회돌봄과 목회상담, 그리고 상담목회

목회돌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Hiltner는 “목회돌봄은 목양의 관점에서 교회나 목사가 신학적인 지식과 연구를 통해 접근하는 모든 활동과 기능⁹⁾”이라고 하였다. Thomas C. Oden은 목회돌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교육, 선포, 치유로 보았으며 더불어 설교, 교육, 행정, 상담, 사회봉사 등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교역론으로서 목회돌봄을 강조하였다.¹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목회돌봄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사역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이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격려와 위로의 사역이 돌봄인 것이다.

다음으로 목회상담에 대해 살펴보자. 목회상담은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회에는 다니지 않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목사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¹¹⁾이며, 또한 목사에 의해 일대일, 또는 그룹에 의해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인 것이다.¹²⁾ 더 나아가 목회상담은 교회의 맥락에서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고난당하는 교인들의 신앙과 삶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나 갈등, 상처, 혹은 위기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즉, 교인들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극복하여 바람직한 회복과 변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는 목회사역인 것이다.¹³⁾

그렇다면 상담목회란 무엇인가? 먼저 오성춘은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과 상담목회(pastoral care)를 구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목양적인 관점에서 목회하는 방법들 가운데서 좀 더 상담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도움을 베푸는 목회를 ‘pastoral counseling’ 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목양적인 관점에서 상담의 기법을 활용하여 목회하는 것을 ‘pastoral care’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목양적인 관점의 목회 가운데서도 정신적인 문제와 장애 및 위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하는 것이라면 후

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적인 기법들을 활용하여 돕는 목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래서 필자는 'pastoral care' 를 '상담목회' 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¹⁴⁾

그는 상담목회란 단순히 목회상담을 목회현장에 활용하는 목회라기보다는 모든 목회 분야 즉, 목회적 관심으로서의 측면과 목회 기능적인 측면의 양편을 다 함께 포용하는 목회상담적 차원의 목회형태를 의미하는 것¹⁵⁾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오성춘은 상담목회를 'pastoral care' 로 보았는데 'pastoral care' 는 목회적 돌봄이라는 말로 이미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오성춘이 말한 상담목회는 목회돌봄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가 말한 상담목회 개념은 목회돌봄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상담목회' 를 목회돌봄의 차원과 더 나아가 목회현장의 실천적 방법에 있어 상담적 관점으로 예배하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심방하며, 또 직접 치료하고 안내하고 지탱하면서 기능적이 되게 하는 모든 목회사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담목회란 상담적 방법을 모든 목회에 적용하는 사역 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그 상담이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인간이해와 치유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목회상담이든, 일반상담이든 또는 기독교 상담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담목회란 상담이 도구가 되어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천되는 목회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자는 counseling ministry라는 용어를 상담목회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성경에 나타난 상담목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사역 현장에서 상담목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담과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권위 있는 대화를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셨고,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여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대화를 통해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주셨다. 세리장으로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친히 그의 집으로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셨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여인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하고 사람에 대한 의존보다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를 통한 탁월한 상담자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사도 바울 역시 탁월한 상담목회자의 삶을 살았다. 사도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서신서들을 통해 편지로 상담목회를 했다.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영적지도를 포함한 영성에 관한 교훈으로부터 삶에 직면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교인들이 사도바울에게 보냈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파문제와 결혼, 헌금, 성생활, 가정생활, 법적소송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등 고린도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담하듯 교훈해 주고 있다.¹⁶⁾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사역을 볼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만남을 통해 접근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적 대화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3) 한밀교회의 상담목회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개척 초기부터 상담목회적 방법으로 목회를 해 온 한밀교회의 상담목회 사역 실재를 프로그램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상담목회사역에 관심이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1) 상담목회 철학

한밀 교회의 상담목회는 연구자의 목회철학과 상담 사역에 대한 철학으로

인해 전인적 성장을 위한 상담 사역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앎과 행함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소망을 품으며 책임지는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¹⁷⁾ 그래서 연구자는 성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여 효과적인 상담목회 사역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실행하였다. 첫째, 인격을 치료하여 건강한 개인을 세우는 상담목회, 둘째,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상담목회, 셋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담목회이다.

상담목회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건강한 교회가 상담목회 사역의 중심센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인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토양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향해 변화하는 삶의 몸부림이 있고, 이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가르치는 분위기인 것이다.

(2) 상담목회의 주체

상담목회 사역을 교회에서 실시할 때 목회자가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한밀교회의 사역 초기에는 목회자가 직접 교인들을 훈련하였다. 그 후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목회자(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사역하던 것을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역의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 평신도 지도자의 자격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교회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상담에 은사가 있는 자 중에서 자원자로 하였다. 그래서 현재는 목회자(연구자)를 주축으로 하고,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가 단독으로 인도할 때 생길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의 균형 유지의 어려움이나 에너지의 고갈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목사이면서 전문 상담자로서 평신도 상담자를 직접 훈련하고 가르쳤기에 지도자인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사역의 방향이 그대로 전수됨으로 인해 평신도 상담자가 책임지고 인도할 때 생길 수 있는 한계점도 보완할 수 있었다.

(3) 상담목회 프로그램

한밀교회에서는 상담목회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상담목회 사역으로는 여기에 소개된 프로그램 외에도 개인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외에도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① 건강한 개인을 세우는 상담목회 프로그램

i)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 훈련¹⁸⁾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성경공부를 통해 첫째,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전인을 함께 고려하여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세우도록 한다. 둘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타인과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부딪침과 도전이 있도록 하였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삶을 체질화함으로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서 악함을 인정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인격변화를 위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접근이기 때문에 영성을 중심으로 전인의 조화로운 성숙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말씀의 핵심적인 이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습득하여 건강한 성경적 사고를 배움으로 건강한 삶을 세우게 한다. 이 성경공부를 통해 멤버와 지도자는 진실하게 만나고 자신의 악과 연약함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제자훈련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시리즈 주제 및 내용

권 주제	과 주제	내 용
1권 제자로의 발돋움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한다.
	경건의 시간	제자로서의 발돋움을 위한 기본을 훈련하여 영적 능력을 세운다.
	기도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함을 배우고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게 한다.
	기도응답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여 기도에 헌신된 자가 되도록 한다.
	교제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교회공동체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을 이해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한다.
2권 믿음의 기초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예수를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살아있는 관계가 되게 한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한 화해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한다.
	성령님과 나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한다.
	증거·복음전도	믿음의 삶의 마지막인 전도를 배우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한다.
3권 그리스도와의 동행	믿음의 삶	믿음의 본질과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
	종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종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한다.
	승리의 삶	성도가 겪게 되는 싸움을 알고 보장된 승리를 위한 전략을 배운다.
	예배의 삶	삶의 핵심인 예배를 배우고 예배자로서의 자신을 세운다.
	봉사의 삶	봉사의 삶을 배우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닦는다.
	경제생활	물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배우며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4권 인격적인 제자로의 성장	인격적인 제자	인격적인 제자로 살기 위해 인격적인 삶을 배운다.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지 배우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적용한다.
	말의 훈련	혀를 다스려 긍정적인 말의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사랑의 삶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배운다.
	고난의 축복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고난을 수용하고 극복하게 한다.
	비전의 삶	주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 제자로서의 삶이다.

ii) 인격치료 및 성숙¹⁹⁾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독교 상담과 인지 치료를 통합하여 개발한 인격 치료 프로그램으로 교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때 기독교인들의 전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강의 중심보다는 나눔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진행할 때 더 효과적이다.

〈표 2〉 인격치료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회	주제	내용
1회	기독교 상담과 인지 치료	기독교 상담과 인지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격 치료의 실제 방법 제시
2회	부정적 자아상 치료	부정적 자아상의 정의, 증상 및 원인과 결과, 치료 방법 제시
3회	열등감 치료	열등감 이해, 유형, 증상 및 원인, 열등감 치료 방법 제시
4회	분노 치료	분노 이해, 분노의 원인과 표현 방식에 따른 분노 치료법 제시
5회	불안 치료	불안의 정의, 불안의 종류, 불안 심리 특징, 불안 치료방안 제시
6회	죄책감 치료	죄책감의 정의, 원인과 성경적 관점 이해, 죄책감 치료방안 제시
7회	거절감 치료	거절감 정의, 원인 및 증상, 거절감으로 인한 성격유형과 치료
8회	우울증 치료	우울증의 정의, 우울증의 증상과 원인, 우울증 치료 방안 제시
9회	완벽주의 치료	완벽주의 정의, 증상과 원인, 완벽주의 치료 방안 제시
10회	중독 치료	중독의 정의, 중독의 각종 유형, 중독의 치료 방안 제시

②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상담목회 프로그램

i) 결혼예비학교

결혼예비학교는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 배우고 돕는 배필로 살아갈 결심을 하도록 한다.²⁰⁾ 그리고 원가정에 대한 이해 및 부모상을 통하여 서로의 심리 내면을 발견하고 이해함으로 부부간 심리를 파악하고 결혼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상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배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기관과 다른 점은 예비 부부 한 쌍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표 3〉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회	주제	내용
1회	심리 검사, 결혼에 대한 기대 나누기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이해와 결혼을 향한 기대를 나눈다.
2회	결혼의 원리	성경적 결혼관 이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3회	남성과 여성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앞으로 파트너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4회	이마고 이해	이마고 원리와 배우자의 선택역동을 탐색하여 결혼 후 예상되는 갈등을 알도록 돕는다.

5회	인격적인 의사소통방법	심정대화법을 익혀 인격적인 의사소통기술을 배우고 실습한다.
6회	갈등해결방법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상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7회	성숙하고 행복한 부부관계	결혼의 과정을 익혀 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행복하고 성숙한 결혼을 준비하게 한다.

ii) 부부 성장학교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진행한다. 첫째, 성경적이며 인격적인 부부생활을 하도록 한다. 둘째,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부부관계가 성숙해진다. 셋째,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만나게 된다. 넷째,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다섯째,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사랑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곱째, 부부의 심리를 배우고 이해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²¹⁾

<표 4> 부부성장학교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회	주제	내용
1회	배우자 선택	이마고 찾기를 통해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한다.
2회	결혼의 과정	결혼의 과정과 부부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펴본다.
3회	치유로서의 결혼	상처를 치유하여 배우자를 새롭게 만날 준비를 한다.
4회	이마고에 대한 이해	배우자 선택과정에서의 이마고 작용을 알아본다.
5회	이마고 치료	자신의 내적 상처와 배우자의 이마고를 탐색해 본다.
6회	부부 이마고 치유	이마고 치유 실습을 통하여 부부의 치유를 경험한다.
7회	남녀의 차이	문화에 따른 남녀의 차이를 이해한다.
8회	부부의 역할 이해	부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9회	부부의 갈등 해결	건강한 갈등 해결 방법을 익힌다.
10회	부부와 성	성의 축복과 성생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한다.
11회	성숙한 결혼 생활	성숙한 결혼 생활에 대한 갈망을 갖고 이를 위해 연습하도록 한다.

iii) 이마고 부부치료

이 프로그램은 이마고 부부치료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부부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마고를 찾아 치유하도록 하는 실습모임이다.²²⁾ 이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은 '내면화된 부모의 상 발견, 자신과 배우자의 이마고 발견, 이마고를 배우자에게 투사함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통찰, 부모의 상과 자신을 분리함으로 인해 자신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 등이다. 내용은 주로 사례 분석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전문가가 모임을 인도하며 평신도 상담자가 보조 인도자로 참석하여 돕는다.

iv) 아버지, 어머니 학교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둘째,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셋째, 남성(여성)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넷째, 비전을 찾고 확인하게 된다. 다섯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게 한다. 여섯째, 부모 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²³⁾

아버지학교는 어머니학교와 그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숙박으로 교육받기도 하며 각각 따로 교육받기도 한다.

〈표 5〉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회	주제	내용
1회	아버지가 주는 삶의 의미	아버지는 자녀의 삶의 원천이 되고, 안내자가 되며,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한다.
2회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는 양육자, 보호자, 규율제공자, 멘토가 되어야 한다.
3회	아버지의 영적 권세	아버지가 자녀에게 영적으로 가지는 권세를 나눈다.
4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	부모가 자녀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며, 자녀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도와준다.
5회	부모와의 관계 회복	부모와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다.
6회	돕는 배필	부부관계가 '바라는 배필'에서 '돕는 배필'로 전환한다.
7회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앞으로 서로 이해를 넓힌다.
8회	비전의 부모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므로 사명과 비전을 확고히 하는 부모가 되어간다.

〈표 6〉 어머니학교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회	주제	내용
1회	어머니가 주는 삶의 의미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고,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2회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위로하고 교훈을 주며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3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	부모는 자녀의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어야 한다.
4회	부모와의 관계 회복	내면의 상처의 원인을 찾고 치유하여 회복해 나간다.
5회	남성과 여성	성 차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한다.
6회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를 '바라는 배필'에서 '돕는 배필'로 전환해 나간다.
7회	남성과 여성의 차이	부부관계에서의 갈등과 오해가 남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으므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알아간다.
8회	비전의 부모	비전을 가지고 방향성을 잃지 않으며 사명과 비전을 확고히 하는 부모가 되어간다.

v) 부모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건강한 인격형성을 위해 좋은 부모를 만들기 위한 '인격적 부모 교육, 건강한 어머니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²⁴⁾ 이 교육은 자신의 원 가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부모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격적인 자녀 양육이 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발달심리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 '영아기 부모 교육, 유초등 부모 교육, 청소년기 부모교육' 등 발달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격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인격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1회	신적 자존감	부모와 자녀 모두 신적 자존감을 가진 자임을 안다.
2회	원칙의 삶	원칙을 잘 지키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운다.
3회	인격적인 부모	인격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4회	긍정적 자아상	자녀에게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돕는 부모가 된다.
5회	열등감 극복	부모에게 있는 열등감을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열등감을 인정하고 극복하도록 돕는다.
6회	아가페 사랑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다.
7회	모범이 되는 부모	부모가 스스로 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운다.
8회	존경받는 부모	자녀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의 모습을 안다.
9회	대화하는 부모	마음을 나누는 자녀중심의 대화를 하도록 한다.
10회	비전 보여주기	자녀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부모가 된다.

③ 건강한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담목회 프로그램

i) 사랑의 관계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인간관계를 훈련받아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며 관계전도 능력도 향상되며, 리더십이 개발되므로 평신도 지도자 발굴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²⁵⁾ 또한 이 훈련을 받으면 평신도일지라도 기초적인 상담기술이 향상되어 고통 받고 있는 성도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성도들의 전인적 성장이 일어나며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 부흥할 수 있게 되며, 셀 교회의 기초 교재로 사용하면 전인적 소그룹 형성에 도움이 된다.

〈표 8〉 사랑의 관계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회	주제	내용
1회	자기 이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2회	경청 훈련	경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경청훈련을 한다.
3회	심정대화 훈련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대화의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풍성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도록 한다.
4회	감정표현 훈련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함으로써 시원함과 관계의 자유를 경험한다.
5회	공감 훈련	수준 높은 공감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6회	자기개방 훈련	자기개방을 통해 자유와 참 만남을 경험하도록 한다.
7회	주도성 훈련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책임 있게 말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며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게 한다.
8회	자각 훈련	자각을 통해 자신, 타인, 하나님과 만나고 삶의 깨달음을 얻어서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한다.
9회	직면 훈련	직면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며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한다.
10회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사랑의 관계 회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

ii)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한밀교회는 연구자가 원장으로 있는 다세움교육원 &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표 9〉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주제	내용
감수성 초급, 중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인격 창조를 목표로 민감성과 투명성을 위해 피드백하는 훈련을 한다.
감수성 고급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연약함이나 부족을 직면하여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한다.
심리치료	내면에 치료받고 싶은 주제를 내어놓고 상담자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치료를 받는다.
이마고를 찾아서	부모로부터 영향 받은 내 안에 숨겨진 이마고를 찾고 치료하여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한다.
자기 치유	서로의 문제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자기내면의 상처를 찾고 치유한다.
침만남 집단	집단의 역동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숨겨진 내 모습을 발견하여 참된 나를 찾는다.
건강한 나를 찾아서	핵심감정을 찾아 어린 시절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건강한 나로 살기 위해 내면을 새롭게 한다.
사춘기 자녀 부모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으로 자녀들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비전의 삶을 살도록 한다.
분노 치료	내 안의 억압된 분노를 만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분노 속에 내재한 상처를 치유한다.
열등감 치료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봄으로 열등감을 치료한다.
거절감 치료	중요한 타인과 관계에서 형성된 거절감을 치료하기 위해 핵심신념을 찾아 성경적인 사고로 바꾼다.

4) 한밀교회의 상담목회 평가

여기서는 한밀 교회 상담목회 사역이 교회성장에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담목회사역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① 상담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개인과 가정이 되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것이 가정문제이다. 기독교인 중에도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에 무지하거나 가정보다는 교회를 우선시하는 등 생활과 분리된 신앙을 지도받아 왔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적응에 실패하여 갈등하거나 위선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한밀 교회 상담목회 사역은 건강한 개인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한 결과, 인격 변화와 성숙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② 상담목회 사역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한밀 교회 상담목회 사역은 가정의 성장, 강화를 도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까지 건강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 증거는 교회성장 평가 전문기관인 NCD²⁶⁾(Natural Church Development) Korea에 의한 한밀 교회 평가를 통해 드러났다. 그 평가에 의하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의 8개 척도에 의한 1차(2000년 3월)와 2차(2001년 1월)의 결과 최소치였던 필요 중심적 전도의 점수가 41점에서 60점으로 19점이나 향상되었으며, 사랑의 관계는 70점에서 97점으로 27점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한밀 교회가 다른 모든 훈련과 함께 기독교 상담사역을 꾸준히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자평한다.²⁷⁾ 현재는 '사랑의 관계 클리닉'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한국 NCD와 함께 한국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③ 상담목회 사역을 통해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밀 교회 상담목회 사역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진정한 변화를 도모하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 방식 및 과정 이해를 훈련하게 한다. 상담 사역에서는 개인 상담 및 부부 상담, 자녀 상담 등을 주축으로 하는 상담 사역과 각종 집단 치료 모임(부부 이마고 치료, 건강한 나를 찾아서, 감수성 및 심리 치료 등)이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결혼예비 학교, 부부 성장학교, 아버지/어머니 학교, 부모교육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목회 사역은 개인을 치료하여 결국 개인이 속한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④ 상담목회 사역을 통해 전도가 활성화되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상담목회 사역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에 전도된 사례와 변화된 가정을 통하여 실제로 교회로 전도되어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도 프로그램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상담목회 사역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세미나이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모교육 세미나를 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밀 교회에서는 부모교육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사춘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변 및 관심 있는 불신자를 교회에 초대하였다. 또 결혼 시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성 교제 세미나 및 결혼 예비 학교 역시 전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한국교회와 타 기관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밀 교회내의 '상담실'로 사역하던 것이 2005년 9월에 '다세움교육원&상담센터'로 개칭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과 기관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다세움은 가정 사역 외에도 코칭이나 목회자들을 위한 아카데미 등 다양하고 폭넓게 사역을 확장하여 가고 있다. 또한 한기총

내에 다세움상담목회대학원을 두어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사모,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상담목회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상담목회 프로그램 중 보완점

한밀교회 상담목회 프로그램 중 보완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대상을 중심(다양한 주제/대상/소그룹 크기 감안)으로 좀 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부모-자녀 갈등 회복, 청소년 자녀-부모 집단상담, 한 부모 자녀 및 부모 교육, 중년 부부의 위기 상담, 노인을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년기 준비 및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부부 및 싱글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III. 닫는 글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21세기의 바람직한 교회성장을 위하여 연구자는 무엇보다 전인적 관점에서의 상담목회 사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큰 효과를 보여준 한밀 교회의 상담목회사역은 실로 17년이라는 기간을 들어서 얻게 된 결실이었다. 연구자는 미래의 바람직한 교회 사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도 함께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인 끌어 모으기'로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성숙한 신자로의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성장은 그 한계를 드러내었고 결국 감소 추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온갖 부정부패에 교인이 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교회는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한국교회의 지도자와 목회자, 모든 성도들은 뼈아픈 반성을 통해 물량적 교회성장을 지양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목회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신도 상담 사역을 실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목회는 목회자 중심의 목회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평신도의 은사를 개발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함으로서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상담 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성도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사회 구석구석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서 복음이 전파되고 소외되었던 장소에 영적 갈급함을 채워 주어야 할 것이다.

상담사역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상담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목회자들은 실제로 상담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의 실태를 파악한 후에 자신의 교회 여건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응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밀 교회의 상담목회사역에 대한 현장보고가 실제로 기독교 상담을 목회현장에 적용하려는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상담목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회자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담목회를 시작하려는 목회자들은 상담이 성도를 성숙케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므로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목회는 더 이상 '찾아가는 목회' 만이 아니라 '찾아오는 목회'의 측면도 만들어가야 한다. 찾아가는 목회는 한 개인이나 그 가정만이 대상일 수 있으나, '찾아오는 목회'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목회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찾아오게 하는 목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상담중심의 목회'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목회의 성공여부는 '목회적 전문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목회자 한 사람이 목회의 모든 분야를 감당해야 하는 목회 형태를 지양하고 목회자들간,

교회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목회사역 과중으로 인한 탈진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 상담자들을 개발하고 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어감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심수명. 『인격치료』. 서울: 학지사, 2005.
- _____.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시리즈 지도자지침서』. 서울: 다세움, 2006.
- _____. 『탁월한 자녀를 만드는 특별한 교육법』. 서울: SFC, 2005.
- _____. 『한국적 이마고 부부치료』. 서울: 다세움, 2006.
- 심수명. 유근준. 『결혼예비학교』. 서울: 다세움, 2005.
- _____. 『아버지, 어머니 학교』. 서울: 다세움, 2005.
- 오성춘. 『목회상담과 상담목회』. 서울: 쿰란, 2003.
- 이기춘.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상담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_____. 『돌봄의 신학』. 서울: 감신, 2001.
- 김대환. “교회 소그룹에서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2005.
- 김보겸. “심수명의 이마고 부부치료 프로그램이 부부갈등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 김수경.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 김용호. “미래목회에 대한 목회전략연구-셀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대학원, 2002.
- 김윤수. “열등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 나태준. “분노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 마용천. “사랑의 관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열등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 박미선. “부모중심 부모 교육이 자기개념, 자아존중감 및 부부자녀간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 손의석. “영적 지도를 통한 상담목회”.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4.

- 심수명. “기독교 상담과 인지치료의 통합에 의한 성격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자기효능감, 대인 관계, 의사 결정 유형, 역기능적 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4.
- 이순복. “평신도 상담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4.
- 이재기.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마고 부부치료 프로그램 적용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 이재실. “교회에서 상담역할과 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 2002.
- 이혜정. “자기심리학의 목회상담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2004.
- 임그린. “거절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 홍인숙. “한국교회 상담목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신학대학원, 2002.
- 김만풍. “전인치유에 있어서 목회상담의 역할”. 두란노. 『목회와 신학』. 통권 제 65호(1993, 4): 94-98.
- 심수명. “기독교상담의 목회현장 적용점”.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2004, 5): 182-211.
- 안석모. “21세기의 상담목회를 전망한다.” 두란노. 『목회와 신학』. 통권 제67호 (1995, 1): 94-99.
- Clinebell, Howard.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박근원 역. 『현대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Hiltner, Seward.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목회신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McGavran, Donald A. *Church Growth: Strategies that work*. 고용원 역. 『교회성장학』. 서울: 보이스사, 1974.
- Sell, Charles M. *Family Ministry*. 양은순. 송헌복 공역. 『가정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 크리스천투데이, 2006. 1. 3. 선교면.

[후 주]

- 1) 크리스천투데이, 2006. 1. 3. 선교면.
- 2) Donald A. McGavran, *Church Growth: Strategies that work*, 고원용 역, 『교회성장학』 (서울: 보이스사, 1974), 22.
- 3) Seward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목회신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13. 치유는 결합, 침해, 왜곡으로 부터 온전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지탱은 '함께 서서 도와준다.' 는 의미로 치유와 달리 상황을 변경시킬 수 없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힘든 상태에서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다. 인도는 개개인 안에 잠재된 적용 가능한 것들을 '끌어내는 것' 으로 스스로 적합한 결단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화해는 인간 자신이 파괴해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 사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 4) 심수명,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시리즈 지도자지침서』 (서울: 다세움, 2006), 8.
- 5) 혹자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인격이 변한다는 말에 대해 그렇다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단기간에 성숙한 성도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오류이며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 6)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만드셨던 온전한 인격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삼위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경의 인물로는 스테반이나 말년의 사도요한이나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7) 심수명,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시리즈 지도자지침서』, 13.
- 8) 안석모, "21세기의 상담목회를 전망한다", 두란노, 『목회와 신학』. 통권 제67호(1995, 1): 94-99.
- 9)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21.
- 10) 이기춘, 『돌봄의 신학』 (서울: 감신, 2001), 46.
- 11) Howard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박근원 역, 『현대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44.
- 12)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23.
- 13) 김만풍, "전인치유에 있어서 목회상담의 역할", 두란노, 『목회와 신학』. 통권 제65호 (1993, 4): 94-98.
- 14) 오성춘, 『목회상담과 상담목회』 (서울: 쿰란, 2003), 5.
- 15) 오성춘, 『목회상담과 상담목회』, 7.
- 16) 손의석, "영적 지도를 통한 상담목회"(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4), 23-24.
- 17) 심수명,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인도자 지침서』, 13.
- 18) 심수명,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인도자 지침서』, 22-24.
- 19) 이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인격 변화에 도움을 주었는지 살펴본 결과 자기 효능감과 의사 결정 능력 향상, 그리고 역기능적 태도의 감소라는 결과를 보여준데 기독교인들의 인격 치료와 성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이 입증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기독교 상담과 인지 치료의 통합에 의한 인격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자기 효능감, 대인 관계, 의사 결정 유형, 역기능적 태도의 변

- 화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4), 35. 이며 이후 학지사에서 『인격치료』라는 제목으로 수정하여 출판하였다. 후속연구로 연구자의 “기독교 상담과 인지치료를 통합한 열등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3권(2004)이 있으며, 이후 제자들이 인격의 제 요소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김운수, “열등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34. 김수경,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23. 나태준, “분노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24. 임그린, “거절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22.
- 20) 심수명 외, 『결혼예비학교』 (서울: 다세움, 2005), 35.
 - 21) 심수명, 『한국적 이마고 부부치료』 (서울: 다세움, 2006), 40.
 - 22) 이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한국적 이마고 부부치료”이며 후속연구로 연구자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증하였다. 김보검, “심수명의 이마고 부부치료 프로그램이 부부갈등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35. 이재기,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마고 부부치료 프로그램 적용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33.
 - 23) 심수명 외, 『아버지, 어머니 학교』 (서울: 다세움, 2005), 45.
 - 24) 이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탁월한 자녀를 만드는 특별한 교육법』이며, 후속연구로 연구자의 제자가 본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요소를 검증하였다. 박미선, “부모중심 부모교육이 자기개념, 자아 존중감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35.
 - 25) 이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풀러신대 박사학위논문인 “A Model of Lay Counselor Training Program”에 기초하였다. 그 이후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일반용, 지도자용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기독교상담의 목회현장 적용점”으로 검증하였고, 후속연구로 김대환, “교회 소그룹에서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2005), 35. 이혜정, “자기심리학의 목회상담적 적용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2004), 25. 마용천, “사랑의 관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열등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35. 가 있다.
 - 26) NCD란 자연적 교회성장원리로서 6대주 32개국 1,000여개 샘플교회의 420만 자료로부터 추출된 자연적 교회성장 원리이다. 현재 50개국 5,000여개 2,100만 자료로 발전한 전세계 모든 문화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며 NCD 원리를 적용한 결과 99.4퍼센트 질적 양적 성장이 전세계 50개국에서 검증되었다. NCD KOREA는 이 원리를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체이다.
 - 27) NCD진단 점수의 의미는 8개척도 점수가 각각 65점 이상이어야 하며 점수간의 편차가 적을수록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자연히 질적, 양적인 부흥이 따라오는 것이다.

【 Abstract 】

A Study of Counseling Ministry as a Model of Church
Growth

-Focused on the Hanmil Presbyterian Church-

Sim Su Myeong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As the christianity had been introduced into Korea about 120 years ago, Korean churches have grown enormously even if short history. Especially, with economic expansion and urbanism, Korean churches have been grown repeatedly and globally. At this point, we should retrospect and evaluate Korean churches' growth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Since the aim of churches' growth is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local churches have to approach differently toward in terms of size and quality-wise in church. Local churches, i.e., for a target of missionary, should become growing continuously when they understand their society and help needs of their people.

I propose church growth through counseling ministry as a way of church's essential ministry. Counseling ministry should be dealt with one of important ministries, such as missionary, service, education, and church's voluntary work. It also strengthens each family and church become healthy, so to grow churches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is article's aim is to propose showing Hanmil Presbyterian church's growth as a way of counseling ministry and to expect this counseling ministry as appropriate way of biblical and systematic ministry for the future church growth.

Key words: Hanmil Church, Counseling, Ministry, Counseling Ministry, Church Growth.